

## 기독교 입국 미국의 흥망성쇠 및 한국의 앞날

갈5:1, 13

2024년 10월 21일부터 30일까지 65명의 성도들이 미국 동부 여행, 1년 전에 계획한 것 실행  
미국 수도 워싱턴, 볼티모어, 랭카스터, 뉴욕, 나이아가라 폭포, 보스턴, 로드아일랜드 프라비던스  
무사히 여행하고 돌아왔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한다.

한 분의 이번 여행 명칭: 자유와 진리를 탐구하는 역사 여행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자유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는가?

동시에 자유가 방종으로 기울고 인간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면 어떤 악한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건국의 아버지 세대들이 떠난 뒤 인간의  
상대적 진리를 추구하는 21세기 미국인들의 정신적/영적 몰락 현실도 보게 됨

이 모든 동부의 도시들, 주들을 누비며 지금부터 100년 전에 위대한 미국을 몸소 체험하고 그런 나라를  
한반도에 세우기 위해 평생 몸부림쳤던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일생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당시 한반도 조선 땅에는 이런 문명을 경험한 사람도 거의 없었고 이런 발전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의  
위대한 힘에서 왔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 고군분투

워싱턴 한국전 참전 기념비 19명의 미군 동상(\*), 미군 사망자 36,634, un 사망자 628,833 (\*)

비문: “알지도 못하는 나라, 만나 보지도 못한 사람들을 지켜야 한다는 국가의 부름에 응한 미국의  
아들딸들에게 미국은 경의를 표한다.” (\*)

freedom is not free. (\*), 한강 작가나 좌익들처럼 배은망덕한 자들이 되면 안 된다.

이번 여행: 미국이라는 세계 최초 자유 민주주의 국가 탄생, 발전, 쇠퇴를 눈으로 확인하는 기회

오늘 < >,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자유와 진리를 추구할 때 어떤 일이 생기고

이 모든 것을 버릴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미국도 한국의 앞날도 동일하다. 자유의 소중함

### 미국의 현실

이번 미국 동부 여행 맨 마지막 일정, 로드아일랜드주 프라비던스, 미국 최초 침례교회(1638년) 방문(약  
5-600명 회중석), 현재 출석 인원이 70여 명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건물 수리비용을 감당하지 못함  
볼티모어 연합감리교회(1900년대 초 건설, 약 7-800명 회중석), 41년 전 거기서 결혼, 당시 30여  
명의 노인들, 이제는 노인들 다 사라지고 할 수 없이 교회 건물이 존스 홉킨스대학으로 넘어감. 모든  
종파의 모든 사람이 와서 기도하는 집으로 바뀌었다고 함

대도시, 명문대학 주변의 교회들, 거의 다 사라지고 이제 한 세대가 지나면 모두 문을 닫아야 한다.

보스턴의 한 가정, 킹제임스 성경을 배우고 믿다가 리더의 잘못된 교리들을 발견하고 나옴. 보스턴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교회를 찾다가 한 군데를 발견해서 감. 교인들 20여명, 모두 할머니 할아버지,  
동양인은 없고 더욱이 30대의 부부와 두 아이들, 이런 가정을 본 적이 없다. 사모님이 두 아이들을  
위해서 선데이 스쿨, 이렇게 어떻게든 믿음 지키려고 노력하는 가정의 모습이 감동스러웠다.

한국에 선교하러 나오던 19세기 후반 선교사들(아펜젤러, 언더우드)의 열렬한 옛 신앙은 명문대 주변,  
대도시 시내, 민주당 지역에서는 이제 찾아보기 힘들다.

하나님의 말씀: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길들 가운데 서서 보고 옛 행로들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며 그 길로 걸으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얻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그 길로 걷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며(렘6:16)

이 결과 유다는 바빌론에 의해 파멸됨

1620년 메이플라워호 102명의 승객들(40여 명만 청교도), 믿음의 자유를 찾아 플리머스라는 곳으로  
이주함, 거주지 하나 없는 데 도착해서 12월 21일 그 추운 날에 내려서 정착하기 시작함

메이플라워호에 직접 들어가 봄, 어떻게 102명이 66일 동안 그런 좁은 공간에서 동물들과 함께 지냈는지  
알 수가 없음(길이 30m, 폭 7.6미터). 생존 자체가 기적임

이들이 목숨을 걸고 항해한 이유: 종교 박해를 피해 신앙의 자유를 얻으려고

그해 겨울에 반 수 이상의 사람이 괴혈병으로 죽음

이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난 400년 동안 위대한 미국을 건설함.

뉴욕 맨해튼의 도시들을 보면 인간의 능력의 극치를 보게 됨(\*), (\*)

목사를 양육하기 위해 1636년부터 하버드, 예일, 브라운 등 목사 양성 학교로 대학들이 시작됨  
그러나 지금은 이 세상에서 가장 인본적이고 하나님을 가장 크게 대적하는 대학들로 변모함  
이런 배은망덕한 일은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미국은 기독교의 붕괴, 국가의 붕괴 바로 일보 직전에 놓여 있다.

그 이유: 성경을 버리고 자유와 진리의 가치를 버렸기 때문에

더 근본적인 이유: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극도의 교만

교만은 온 우주 공간의 최초의 죄: 사탄 마귀 루시퍼,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교만은 이 땅의 최초의 죄: 사람이 신들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진 것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 2001년 9.11 테러 사건으로 무너짐

바로 그 자리에 One world trade center 빌딩이 세워짐(2006-2013)

104층, 서방 세계 최고 높이 빌딩, 세계에서 7위

엘리베이터로 100-102층 전망대로 올라가면 뉴욕의 동서남북 모두를 볼 수 있다.

말 그대로 빌딩 숲을 볼 수 있다.

이것이 인간이 만든 21세기 바벨탑이다.

인간의 특성: 일이 잘되고 문명이 발전하여 잘 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게 된다.

바로 그 동일한 일이 21세기 미국에서 반복되는 것을 보고 돌아왔다.

뉴욕 맨하탄 타임스퀘어, 휘황찬란한 LED 광고 불빛, (\*)

수도 없이 지나다니는 전 세계 100여 개 나라 사람들

대체 무슨 생각을 할까?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시2:1-4, 11-12

인간의 역사는 반복된다. 그러나 인간은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

모세의 40년 이집트 탈출 역사

그 뒤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땅 분배

그러나 여호수아와 그와 같이 살던 장로들이 죽자 이스라엘 자손은 배교하고 하나님을 버림(삿2:7)

그 뒤 재판관들의 시대: 하나님 대적, 우성 숭배, 하나님의 도움, 또 다시 우상숭배

왕국 시대: 동일한 일 반복됨. 결국 아시리아와 바빌론에 의해 멸절됨

예수님 당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는데도 그분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음

AD 70년: 예루살렘 파멸, 디아스포라, 1948년 5월 국가 설립, 세계 최대 동성애 축제(텔아비브)  
이것이 인간의 특성이다.

일이 안 풀리면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함

구출받으면 자기 힘으로 된 것으로 착각함, 자손들이 하나님을 대적함, 이교도 국가로 변모함  
이번 미국 동부 여행:

오래 전 성경 시대 이야기가 아니라 현시대에 이루어지는 동일한 반역의 패턴을 눈으로 보고 확인함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성경 역사와 교회 역사를 냉정한 눈으로 이해해야 한다.

오늘 미국의 흥망성쇠, 우리의 흥망성쇠

주후 600-1500년까지 유럽의 상황

미국이라는 위대한 나라 건국 설명

AD 30년 예수 그리스도의 내 교회로 신약 교회 출범함

신약 교회의 특징: 전 성도 제사장 직분(구약식 교회 완전 타파, 제사장 평신도 구분 없음), 영혼의  
자유, 오직 성경으로, 침례와 주의 만찬의 두 규례, 목사와 집사의 두 직분, 국가와 교회의 분리  
시간이 지나면서 313년 밀라노 칙령, 불신자 황제가 교회의 수장이 되는 공교회의 시작

교회는 로마 제국의 국가 교회가 됨: 누구나 이것을 믿어야만 함  
 이후 어거스틴의 등장: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국가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을 제거해야 함  
 그 이후 무려 1000년 이상 중세 교회는 국가 교회: 구약 교회(제사장 제도, 고해성사), 유아 세례를  
 통한 국가 및 교회 회원, 성경 금서, 카톨릭 교회와 다른 의견을 가지면 이단으로 박멸함  
 1500년경: 전 유럽은 스페인 포르투갈 등 포함해서 100% 천주교 국가 교회  
 루터의 종교 개혁(1517년), 독일, 스칸디나비아 3국: 루터교, 국가 교회  
 영국: 1534년 헨리 8세의 수장령, 영국 국교회(성공회), 국가 교회  
 스코틀랜드: 존 낙스의 장로교회(1560), 국가 교회  
 존 칼빈의 제네바 통치도 국가 교회  
 당시 유럽 국가들의 왕이나 치리자가 자기 나라나 도시의 안정을 위해 국가 교회를 시행함(신앙이 하나가  
 되어야 분쟁이 생기지 않는다).

말을 듣지 않고 신앙의 자유를 이야기하면 핍박을 받고 심하면 재산 몰수, 사형  
 당시 세상은 천주교나 프로테스탄트 획일주의 사상 지배(모두 국가 교회, 정교일치)  
 특징: 유아 세례, 태어나자마자 이마에 물을 뿌리고 국가와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함  
 요람에서 무덤까지 교회 혹은 교회 국가가 한 사람의 모든 것을 주장함  
 여기서 벗어나 달리 생각하거나 다른 교리를 전파하면 이단으로 지목되어 핍박을 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함

### 종교 개혁 시대에 양심의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함

종교 개혁 시대: 스위스, 독일 네덜란드에서 재침례교도들의 등장  
 재침례교도들의 주장: 국가 교회의 시민이 되기 위해 시행하는 유아 세례는 무효이다.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성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아야 성경적이다.  
 교회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국가가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면 안 된다.  
 그러므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받은 유아 세례, 성인 세례는 무효이다. 다시 받아야 한다.

AnaBaptist(\*)

AnaBaptist의 강조점은 침례가 아니라 유아 세례 반대, 구원의 확신 이후 침례  
 이것이 신약교회의 믿음이다.

### 1. 스위스 재침례교도들

1525년 스위스 취리히, 펠릭스 만츠의 집에서 모임이 시작됨.  
 1월 21일, 만츠의 집에서 성인 침례(집행자 그레벨), 스위스 형제 교회 출발  
 취리히 시 의회: 재침례 받는 자 벌금, 추방  
 시 의회를 장악한 츠빙글리: 재침례교도 두 명 구속  
 1527년 1월 5일 만츠는 취리히 시민들과 만츠의 어머니 앞에서 사지가 묶인 채 의사 당함(침례  
 때문에)

그레벨은 1525년 2월 만츠의 집에서 침례  
 1525년 4월 9일 지터 강에서 500명의 신자들에게 침례  
 1525년 10월, 유아세례 부인, 성인 침례 시행 죄로 무기 징역  
 그 뒤 도망했다가 1526년 26세의 나이로 페스트로 죽음

재침례교도들의 교회: 종교개혁 시대에 등장한 최초의 자유 교회

만츠와 그레벨 모두 츠빙글리의 제자들

츠빙글리는 성경대로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는 실제로 그리 행해야 할 때는 하지 않고 국가 권력을  
 동원해 양심의 자유를 가진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함  
 루터, 칼빈, 츠빙글리 등 종교 개혁자들의 공통점: 양심의 자유 핍박, 정부 권력을 동원해 성경대로  
 믿겠다는 신약 교회 성도들을 핍박함, 어거스틴의 무력 사용 교리에 따라

## 2. 네덜란드의 재침례교회: 메노나이트

네덜란드는 종교개혁 공인 본문 저자 에라스무스의 조국이다.

카를 5세는 1525년 재침례교도들에 대한 칙령, 당사자는 화형에 처한다.

숨겨준 자는 참수형에 처한다. 여자들은 생매장 한다 등

여러 사람들이 화형, 수장, 고문, 약 3만 명의 재침례교도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기록이 와중에 메노 시몬이 나옴; 원래 카톨릭 신부

1. 화체설 부인, 2. 유아세례 부인, 3. 재침례교도들 처형 반대(양심의 자유 허용), 4. 국가 교회 반대

결국 1536-1537년경에 침례 받아 재침례교도가 됨, 침례교 사역자가 됨

이단자, 쫓겨 다니면서 복음 선포, 침례

메노나이트: 메노파 사람들 수천 명 순교

그는 침례 교도였지만 그의 후예들은 메노나이트 형성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일부는 미국 이주: 펜실베이니아 저먼타운

1717년 스위스 형제단, 펜실베이니아, 버지니아, 오하이오, 세상과 격리해서 사는 아미쉬(\*)

## 3. 영국의 재침례교회

영국: 헨리 8세 국교회, 국교회의 타락

분리주의 운동: 영국 국교회 내에서의 개혁이 아니라 거기서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

영국 문헌: 1573년경 약 5만 명의 재침례교도들

1538년 헨리 8세는 재침례를 주장하는 자들 추방 조치, 핍박

이런 식으로 종교개혁 시대에 전 유럽에서 재침례교회 등장

이들의 특징: 이단 소리를 들으며 자유 신약 교회를 지향함

### 미국에서 종교의 자유와 침례교인들의 역할

제임스 왕 시절인 1620년, 필그림 파더스라는 사람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갔다.

1620-1640년 상황: 영국의 많은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와 생존을 위해 미국, 매사추세츠 주로 이주함,

이들의 트라우마: 1,000년 이상 지속된 국가 교회의 핍박과 횡포

### 식민지에 회중 교회 설립

1640년경 매사추세츠에 있던 20,000여 명의 청교도들은 새 대륙에서 미국 회중 교회(조합 교회)를 만든다.

이들은 유럽 국가 교회들의 경직된 위계 구조에 강력히 반발하여 민주적 회중 정치를 채택했다.

위키 백과: 이들은 미국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새로운 가나안이라고 믿었으며 그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되는 새로운 나라를 미국 땅에 만들고자 주력하였다.

즉 이들은 칼빈주의에 입각한 신정 정치를 구현하려고 함

다른 신앙은 허용하지 않음, 핍박, 매질 등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도망 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앙의 자유는 허락하고 다른 사람의 자유는 핍박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함, 아직도 신정 정치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함

### 로저 윌리엄스의 등장: 종교의 자유 창시자, 전도자

순수한 분리파 교회의 옹호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로저 윌리엄스 Roger Williams(1603-1684)는 원래 청교도 목사, 1631년 보스턴에 도착함

그는 기독교 신자라면 변절한 교회 및 세속 국가와 자신을 분리하는 것이 의무라고 주장했다.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그런데 매사추세츠 주의 회중 교회는 교회가 국가 속으로, 국가가 교회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데 철저히 몰두했다. 급격한 신정 정치, 그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청교도 공동체에서 추방되었다(1635년 가을에 추방 결정, 1636년 추방됨).

그는 1638년에 침례를 받고 미국에서 가장 먼저 침례교회를 세움(재침례교도)

아메리칸 토착민들의 도움으로 아내와 자신의 새로운 거주지인 프로비던스(Providence, 하나님의 섭리)

로 이주했으며 종교적 박해를 받는 사람들을 받아들였다. 이곳이 바로 로드아일랜드 주, 거기서 그는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이 자유를 전통적인 기독교 교파들을 넘어 유대교와 다른 소수 종교까지 아우르는 것으로 확대해 갔다.

그의 뒤로 펜실베이니아 주, 윌리엄 펜, 종교의 자유

그러나 영국이 장악한 전체 식민지 13개는 국가 교회, 신앙의 자유 불인정

천주교, 성공회, 루터교, 회중교회(칼빈주의자들), 모두 신정 정치, 자기들 구역에서는 자기들의 교가 국교가 되어야 한다.

양심의 자유/종교의 자유를 달라고 하는 자들을 핍박

신대륙에서 거의 유일하게 침례 교인들만 양심의 자유/종교의 자유 요구

이것이 침례교회의 영혼의 자유(soul liberty)이다.

### 1차 대각성 운동(1726-1770)

이러는 가운데 국가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김, 기독교 정신이 희미해짐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위해 신대륙에 옴, 자식들 문제

자식들은 유아 세례만 받음, 진정한 회개의 경험이 없음. 신대륙에서의 무한한 자유, 핍박이 없음, 세례 교인들의 숫자 감소, 중생의 체험이 없어도 이런 자들을 절반짜리 계약자들로 인정해서 세례를 주라 (Halfway Covenant), 중도 언약, 교회의 문제

### 1차 대각성 운동(1726-1770)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런 문제 직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따른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빠진 죄인들> 설교

부흥사 조지 휫필드의 등장

영향: 당시 미국 정착민 30만 명, 3만 명 회개, 교회 출석률 증가, 목회자 지원생 증가, 중생 강조

### 침례교회의 발전

대각성 운동의 문제는 장로교회와 회중 교회에서 발생함

구원받지 않았는데도 유아 세례에 의한 회원권을 인정하는 교회에서 교인들이 이탈함

자연스럽게 중생 강조, 중생의 표시로 받는 침례를 받는 침례교회 선택

권위주의 탈피, 교회의 계급 질서 탈피, 모두 형제자매, 가정 방문, 주중 성경공부

이러는 와중에 식민지 사람들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요구

침례교인들의 주장, 종교의 자유: 국가와 교회의 분리 주장

침례교인들의 이런 모든 것들이 대중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침례교회가 널리 확산됨

현재 미국 인구의 15.3%, 침례교회(위키백과)

### 미국의 독립전쟁(1775-1783)

로저 윌리엄스의 양심의 자유 사상, 침례 교인들을 통해 조지 워싱턴, 제임스 매디슨, 토마스 제퍼슨 등에게 영향을 크게 미침

1776년 7월 4일 독립 선언서, 1783년 13개 주 독립 인정

### 미국 헌법

미국 독립 후 1787년 필라델피아에 소집된 헌법제정회의가 새로 제정한 헌법

특별히 1791년 수정 조항 1조부터 10조까지, 권리장전

(\*) 수정 조항 제1조(종교, 언론 및 출판의 자유와 집회 및 청원의 권리)

연방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 사항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당시 침례교 목사들은 버지니아 주지사로서 있던 제임스 먼로에게 간청을 했다. 즉, 연방 헌법을 인준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으나 그것만으로 부족하니 권리장전 10개를 반드시 수정조항으로 붙여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이것이 받아들여졌고 비로소 인류역사상 최초로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었다. 먼로는 후에

미국 5대 대통령이 되었다.

침례교회는 양심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정신으로 토머스 제퍼슨, 제임스 매디슨이 구상한 초기 미국 헌법의 기초를 이루는 데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 토마스 제퍼슨, 분리의 벽

수정 조항 이후에도 당시 13개의 주 정부들은 각각 이미 특정 기독교 교단을 주 종교(state religion)로 정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연방 정부가 어느 하나의 기독교 교단을 국교로 정하는 것은 심각한 교단 간 분열을 일으키는 일이고, 일부 주의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었다.

토마스 제퍼슨이 미국 3대 대통령이 되었을 때의 일

1801년 코네티컷 주의 덴버리 침례교회 연합회가 편지를 보냄

당시 침례교인들은 코네티컷 주의 국가 교회인 회중 교회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다. 회중 교회를 위해 강제로 세금을 내야 했다. 국가 교회 문제를 해결해 달라.

제퍼슨은 1802년 1월 1일 덴버리 침례교도들에게 보낸 편지(Jefferson's Letter to the Danbury Baptists)에서 국가와 교회 사이의 분리의 벽을 쌓아야 함을 최초로 언급했다.

즉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 국가가 종교 정책에서 손을 떼야 한다. 교회가 아니라 국가가. 이런 일을 통해 미국의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는 일이 생기고 이것이 미국 헌법의 확산으로 인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이것은 교회나 성도들이 정치적인 발언을 하리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국가가 국교를 세우지 말라는 것이다. 왜? 무려 1500년 동안 온 세상이 국가 교회의 압제 아래 고생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종교의 자유는 카톨릭, 개신교의 핍박을 받으면서 자유 교회 침례 교인들이 추구한 가치이다.

(\*) 영어로는 soul liberty라고 말한다.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께 바치라(마22:11).

우리의 영혼, 양심, 자유는 카이사르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 미국의 쇠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자유를 쟁취한 미국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자유에 힘입어 도시 개척, 고층 빌딩 건축, 과학의 발전, 우주선, 휴대폰, 인공위성, 인터넷

그런데 간덩이가 커졌다.

인본주의의 극치

생명 윤리의 부재, 낙태

오바마 대법원 동성 결혼 허용

트랜스젠더 수술 허용, 2016-2019년 3배 증가, 연간 13,000명, 10-30대 사람들(\*)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사악한 일들을 마음대로 자행한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삿대질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차별 금지법의 족쇄로 가둔다.

좌익들의 Political correctness, 옳고 그른 것을 말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뉴욕의 타임즈 스퀘어 등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 영혼이 없다.

아미쉬, 메노나이트, 극도의 분리주의 구약식 율법 체계, 행위 구원

소수의 성경 신자들, 대개는 근본주의 침례교인들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 결과 이제 미국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 하나님의 인내에 한계가 있다.

LGBTQ 지지 카말라 해리스, 조 바이든 등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기기 막한 세상

회개하지 않으면 곧 멸망한다.

### 한국은 어떤가?

크리스천 이승만의 위대한 정신에 힘입어 한국 역시 자유 민주주의 국가, 기독교 입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계 10위 국가

그러나 한국 역시 역사의 교훈을 전혀 배우지 못하였다.

전쟁과 가난을 모르는 세대의 등장, 교회의 몰락, 인본주의 목사들, WCC 종교 통합, 지옥을 부정하는

## 신학자들

오순절 은사주의 기복신앙,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등 어처구니없는 이단 사이버 특별히 한국의 개역성경은 수많은 교리적 오류를 포함하여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기에 부족하다.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다수 본문 성경, 루터 성경, 킹제임스 성경 등의 옛 행로들로 돌아가야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들이 보존된 성경, 반 카톨릭 성경을 써야만 한다. 그러나 역사의 진실로 볼 때, 특별히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온 것을 고려할 때 대대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다.

###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갈5:1,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에 얽매이지 말라. 갈5:13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사망, 마귀,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었는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성경 그대로 믿어야 한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이다.

목사나 교회나 교단이 아니라 오직 성경을 믿어야 한다.

내가 바로 서 있는가?

우리 가족이 바로 서 있는가?

바로 내 옆의 이웃들이 바로 서 있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바른 것을 전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디어 사역의 중요성이 심히 크다.

하나님의 은혜와 공훈로 끝까지 진리 편에 서며 진리가 주는 해방의 자유를 누리며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한다.